

# 새정치 원내대표 경선 ‘물밑경쟁’ 시작됐다

### 내년 5월까지 임기...20대총선 공천 막강 영향력 행사

### 김동철·이종걸·박기춘·설훈·조정식·최재성 등 거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경선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내년 5월까지 임기인 차기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공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여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9일 새정치연합 주변 흐름을 종합하면 4선의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의원을 비롯해 3선의 김동철(광주 광산갑)·박기춘

(경기 남양주을)·설훈(경기 부천 원미을)·조정식(경기 시흥을)·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 등이 경선 레이스에 사실상 발을 담갔다.

비노계에선 우선 광주 출신인 김동철 의원이 거론된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활동을 통해 중도 성향 의원과 유일한 호남 후보로서 호남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비노

계는 문 대표가 당권을 장악한 만큼 원내대표만큼은 비노계에서 나와야 친노의 전횡을 막고 당내 정치적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심은 친노계(親盧系)의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 흥덕 을)의 출마 여부에 모아진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내대표에 도전해 왔던 노 의원은 문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친노 진영은 노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노(親盧)패권주의’란 말이 나올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문 대표의 한 측근은 “노 의원이 스스로 출마를 접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여전히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지원계’인 박기춘 의원도 유력한 비노 후보로 거론된다. 친노 진영과도 관계가 나쁘지 않고 계파색이 없다는 평을 받는다. 또 친노계에 대한 견제 능력과 대어(對輿) 협상력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한길계인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2차 투표에서 패배해 이번엔 설욕을 다지고 있다.

‘동교동계 막내’이자 고(故) 김근태 고문과 가까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계인 설훈 의원도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는 ‘강한 야당’을 앞세워 도전장을 냈다. 손학규계인 조정식 의원은 온화한 성품에 계파를 뛰어넘어 두루 관계가 좋고, 직전 사무총장직을 무난히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세균계 최재성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경륜에 경제지식이 풍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해당 후보들은 사실상 경선 모드에 들어갔음에도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개 행보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체제’에서 첫 공식 시험대인 4·29 재·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내 선거에만 몰두해 당력을 분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따로 만나거나 전화를 돌리며 자신의 뜻을 알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등 물밑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회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및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연금’ 최종안 도출 다시 머리 맞댄다

### 오늘부터 ‘실무기구’ 가동...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 공투본, 서울서 공무원연금개혁 개악저지 결의대회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단일안 도출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댄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 기구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28일 활동을 종료했지만 이번주부터 실무기구를 꾸려 2라운드 협의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30일 주례회동을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실무기구의 명칭·활동기간, 개혁입법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한다. 당초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31일로 예정됐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되고, 국회 연금 특위의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어 하루 앞당긴 것이다.

새누리당은 여·야·정·노의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대타협기구 산하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구성 등 11가지 합의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쳤다. 이

에 따라, 대타협 기구는 미진한 쟁점에 대해서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 요청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8만여명, 경찰 추산 6만여명이 참석해 ‘국민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국민대타협기구가 약 90일간의 일정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타협에 실패한 데 대해 항의하고 국민연금 강화 및 기초연금 확대 등을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연금도 소득대체를 높여야”

### 취임 50일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고 나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를 높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취임 50일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우리 당은 공무원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를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 국민모임, 창당 깃발 올렸다

### 550명 참석 발기인대회...정동영, 오늘 보선 출마 입장 발표

국민모임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폐업공장에서 창당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창당의 깃발을 들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신학철 화백, 최규식 전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창당준비위원회의(창준위)를 결성했다. 지난해 11월 재야 인사들이 구체적인 창당 논의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사실상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김세균 교수는 대표 취임 인사에서 “다른 진보세력과 힘을 합쳐 4·29 재보선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리고 진보 세력을 결집시켜 9월 이전까지 창당을 완료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20석 이상을 얻어 야권 교체를 실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노선에 대해 “중도로는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역할의 이상을 맡기 어렵다”며 “우리는 과감하게 비(非)중도, 진보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발기인 1050명 중 550명이 참석했으며, 정의당과 노동당 지도부가 참석해 국민모임과 연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국민모임에 참여한 정동영 전 의원은 4·29 재보선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출마 문제와 관련 “막판 고심 중이다. 30일 오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

## 이정현 ‘쓰레기 발언’ 논란

### 조영택 ‘시민모독 사과해야’

### 이 최고 ‘과한 표현 죄송’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의 이른바 ‘쓰레기’ 발언 파문이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광주 서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2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민을 모독한 이 최고위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쓰레기’ 발언은 본의가 무엇이든 광주시민을 모독한 저질 발언으로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광주 서구를 4·29 보궐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정승 후보 지지 연설을 하는 과정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것을 거론하며 “광주 시민들이 이정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쓰레기

다. 박근혜 대통령이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 청와대 정부, 홍보수석 시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발언 파문이 확산하자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발전을 위해 크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을 키워서 호남의 큰 재목으로 써달라고 간절하게 거듭 호소 드린다는 것이 과한 표현이 돼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 죄송하다”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기가 몸담았던 당을 배신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또 국민을 배신할 것”이라며 “유권자가 정치인의 배신을 눈감아 주고 허용하는 것은 큰 재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큰 배신자를 키우는 것”이라며 탈당 경향이 있는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와 최근 탈당한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개호, ‘도로 없는 농막’ 건축 가능케 개정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도로가 없더라도 농막(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농막을 포함한 건축물은 너비 2m 이상의 도로와 접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등의 통행이 필요치 않은 논로 주변에는 임시가설물 등 농막을 지을 수 없다. 이 의원은 “도시의 주거지 등은 도로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게 맞지만 논지로부터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농막 설치 제한에 따라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컸다”며 “도시에 주거하며 인근 농촌지역에서 텃밭 등을 일구던 도시민들에게도 이 법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jkipark@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은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연하고 나선 위로 종주국으로 가는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헤이은와이는 세계 최초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도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은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